

# 요트 타고 바닷길 여행...시청자도 대리만족

‘바닷길 선발대’ 목포→독도 완주  
‘요트원정대’ 요트로 태평양 여행  
‘정글의 법칙’ 무인도 탐방도 인기



예능프로그램들이 저마다 바다로 떠난다. MBC에브리원 ‘요트원정대’와 tvN ‘바닷길 선발대’는 출연자들의 요트 여행을, SBS ‘정글의 법칙-헌터와 셰프(위 사진부터 시계방향으로)’는 무인도 생존기를 그린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를 보고 싶다면, TV를 보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여행이 여의치 않은 요즘, 바다를 무대로 삼은 예능프로그램이 속속 나오고 있다. 방송가에서 꾸준히 인기 있는 낚시뿐 아니라 요트 여행·무인도 생활 등 각종 소재가 바다와 어우러지면서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대리만족도 안겨주고 있다.

●요트·무인도, 코로나19가 불러온 유행?

이중 가장 눈에 띄는 소재는 요트다. 18일 시작하는 tvN ‘바닷길 선발대’와 현재 방영 중인 MBC에브리원 ‘요트원정대’가 모두 연예인들의 요트 여행을 콘셉트로 내세운 프로그램이다. ‘바닷길 선발대’는 연기자 김남길, 박성웅, 고규필, 고아성이 전남 목포부터 독도까지 1094km에 달하는 바닷길을 완주하는 과정을 그린다. ‘요트원정대’는 무대를 태평양까지 넓혔다. 연기자 진구, 가수 최시원 등이 태평양 바다를 요트로 여행했다.

각 프로그램은 배경을 오로지 요트 위로 제한하면서 코로나19 여파로 촬영지 섭외에 난항을 겪는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순조롭게 촬영을 마쳤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선상 촬영에 맞게 제작진 규모도 최소화했다.

더불어 각 제작진은 시원한 풍광과 함께 프로그램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도 쟁겼다. 특히 ‘요트원정대’는 항해 중 다른 나라에 체류하는 과정을 담

으려던 계획을 틀어 ‘24시간 항해’ 콘셉트에 집중할 덕분에 시청자들로부터 오히려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복성’ 우려되지만, 묘안은 딱히...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 속에서 다른 제작진도 바다로 시선을 돌린다. SBS ‘정글의 법칙’은 임지호 요리연구가와 김병만, 김구라 등 연예인들이 국내 무

인도에서 직접 잡은 해산물로 밥상을 차려먹는 ‘헌터와 셰프’ 특집을 진행 중이다. 10일 방송을 시작한 MBC ‘안 싸우면 다행이야’도 배경을 무인도로 설정했다. ‘요트원정대’는 26일부터 연기자 장혁 등 새 멤버들로 꾸린 시즌2를 방송한다. 요트 초보들이 면허 취득부터 운전까지 배우는 과정을 담는다.

일각에서는 엇비슷한 포맷에 대한 우려

를 내비치지만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13일 “제한된 장소 선택과 촬영 환경으로 인해 비슷한 포맷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는 한, 별다른 묘안이 없다. 당분간 섬이나 배 위 등 고립된 장소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계속 생겨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방탄소년단, 만 30세까지 징집 연기 고려”

병무청장, 병역법 개정안 찬성  
병역특례제 적용은 고려 안 해

그들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입영 시기가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들을 비롯한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허용 논란과 관련해 병무청이 병역 징집 및 소집 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 개정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확정, 시행되면 멤버 가운데 최연장자인 진(28)을 비롯해 현재 대부분이 2년 안에 입대해야 하는 방탄소년단에 대한 징집과 소

집 시기 연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입영 연기 문제에 대해 “상한선(만 30세)까지는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8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문체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한해 만 30세까지 징집 연기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병역특례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국방부 장



방탄소년단

관은 최근 “(방탄소년단 멤버들에 대한 병역특례제 적용과 검토는)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병무청도 “검토에서 제외된 결정에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 장관은 “활동 기간을 고려해 연기 정도는 검토해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방침은 “공정성과 형평성” 원칙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모 청장은 입영 연기 대상자 추천 기준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엄격한) 추천 기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방탄소년단의 팬인 ‘아미’들도 병역특례 허용에 대체로 부정적인 시선을 내놓았다. 진이 올해 2월 “병역은 당연한 의무이다.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할 예정이다”고 밝힌 것 등을 근거 삼았다. 실제로 ‘아미’라고 밝힌 한 팬은 방탄소년단 멤버들에 대한 병역특례를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의 SNS에서 “멤버들이 병역 의무 완수 의지를 다졌다”며 관련 내용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 배철수, FM4U ‘김현철의 골든디스크’ 출연



배철수

MBC 라디오의 대표 DJ인 배철수와 김현철이 방송에서 만난다. MBC는 “FM4U ‘김현철의 골든디스크’의 15일 방송에 배철수가 출연한다”고 13일 밝혔다. 배철수는 2010년 ‘배철수의 음악캠프’를 통해 20년 이상 MBC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한 진행자에게 주는 ‘골든마우스’ 상을 받았다. 김현철은 MBC 라디오에서 10년 이상 프로그램을 진행해 올해 7월 ‘브론즈마우스’를 수상했다. 김현철은 “골든디스크”는 ‘배철수의 음악캠프’의 부록 같은 방송”이라며 “30년차 DJ 배철수를 ‘영접’할 준비를 마쳤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 뇌가 색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 강주현의 퍼즐월드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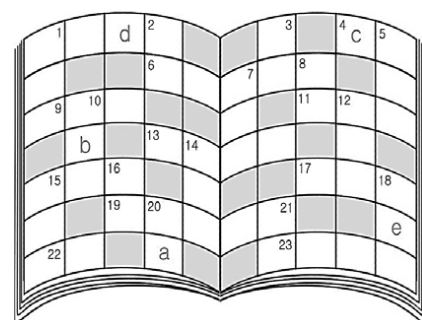
#### ■ 스도쿠문제

		1		4		8		
				9	7	6		
4		6				9		7
	8			3			5	
2	7		6		5		9	1
	1			9				8
1		2				5		3
				5	2	3		
			8		1		6	

#### ■ 스도쿠정답

			3		1	5	7	
		1		4				5
4						3		2
	3		9		8			2
1			7		9			5
	8			2		1		7
6		9						1
		2				6		7
			1	8	4		5	

#### ■ 낱말문제



#### ■ 가로열쇠

01.기나긴 여름날. 04.일이 긴요하고도 급함. 06.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뜻. 09.목표로 삼는 곳. 11.트집을 잡아 시비거는 듯한 투. 13.어찌 감히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느냐는 뜻. 15.임금에게 올리는 진작상.

17.핀란드식의 증기 목욕. 19.세상에서 일어나는 착한 일이나 악한 일이 모두 자기 몫가짐의 거울이 된다는 말. 22.경치를 아름답게 꾸밈. 23.택시에 장치한 요금 자동 표시기.

#### ■ 세로열쇠

01.공문 따위의 큰 문을 잠글 때 가로 지르는 굵고 긴 나무. 02.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흥미 있는 이야기. 03.오늘의 바로 다음날. 05.소나 말 따위의 가족들에게 먹이를 담아 주는 그릇. 07.오래도록 살고 죽지 않는다는 열 가지. 08.흠뻑 익어 붉고 말랑말랑한 감. 10.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발가벗은 상태라는 뜻. 12.살이 찌도록 기르는 소. 14.꽃과 함께 떨어진 어린 감. 15.사냥하여 잡을 수 있도록 허가된 새. 16.상업상 목적에 쓰는 선박. 18.나룻배가 닿고 떠나는 일정한 곳. 20.음악을 연주하는 데 쓰는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21.기업체 등에서 일하는 직원을 위해 그 기업체에서 지은 살림집.

####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풀 다음 a, b, c...칸을 이어놓으면 책 제목이 됩니다.

